

# 지각자의 성격특성이 의복의 시각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황 미 선\* · 이 명희<sup>†</sup>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sup>†</sup>

## The Effect of Perceiver's Personality on Visual Evaluation of Clothing

Mi-Sun Hwang\* · Myoung-Hee Lee<sup>†</sup>

Dept.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sup>†</sup>

(2005. 5. 6 토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differences of visual evaluation according to perceiver's personality(introvert-extrovert) and clothing styles. Subjects were 120 women in age from 18 to 37 years in Seoul. The stimuli of 7 clothing styles were used for visual evaluation.

Three dimensions of visual evaluation were derived by factors analysis: elegance, activity-individuality, and fashionability. The pants suit was estimated low in activity-individuality and fashionability, but the hip-hop style high in activity-individuality. The skirt suit was rated high in elegance, but the 8th length pants low in elegance. Personality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evaluation of activity-individuality. Extrovert women perceived all stimuli to be more active and individual than introvert. Fashionability factor had an interaction effect by personality and clothing expenses. The introvert women in low clothing expenses group evaluated the stimuli to be more fashionable than the introvert in high clothing expenses group.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eference of all clothing styles according to personality. Extrovert women liked 8th length pants more than introvert. The introvert women in low clothing expenses group liked the skirt suit less than the extrovert.

Key words: personality(성격), introvert-extrovert(내향성-외향성), clothing style(의복 스타일), perceiver(지각자), visual evaluation (시각적 평가)

---

Corresponding author: Myoung-Hee Lee, E-mail: mhlee@sungshin.ac.kr

이 논문은 2005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I. 서론

의복은 타인을 지각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되며, 개인이 착용하는 의복은 착용자의 역할, 성격, 가치관의 일면을 나타낸다. 즉, 의복은 무언의 언어로서 자아표현의 수단인 동시에 상징적 가치를 지녀 타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을 평가할 때는 지각대상자의 신체, 의복, 상황, 지각자의 특성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 연구에서 의복스타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의복스타일은 의복의 유형성, 매력성, 신체노출 등을 포함하며, 의복디자인 요소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선행연구<sup>1~4)</sup>에서는 로맨틱, 드레시, 클래식, 페미닌, 보수적인 의복스타일에 따라 착용자의 지성, 개성, 사회성, 활동성, 전문성 등의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지각대상자를 평가하는 지각자의 특성에 따라 의복의 시각적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지각자 변인은 성별이 주로 많이 연구되었으며,<sup>5~8)</sup> 지각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지각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의복 이미지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지각자의 성격에 따라 선호·평가, 짧음 요인의 지각이 다르다<sup>9)</sup>는 연구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의복의 활동성, 성숙성의 평가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sup>10)</sup> 품위 및 개성 평가가 지각자의 소극보수형, 적극개방형 등 성격특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sup>11)</sup> 등이 있다.

그러나 지각자의 심리적 특성 중에서 내향성-외향성을 다룬 내용은 거의 없는데 내향성-외향성은 일찍이 의복과 관련이 있는 성격 특질로 간주되어 왔다. 내향성-외향성은 한 사람의 근본적인 사고 및 행동의 방향이 자신의 내부로 향하였는가 또는 외부로 향하였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sup>12)</sup> 내향성-외향성의 성격 차원과 관계된 의복연구들은 주로 의복 행동 및 의복선호도와 관련되어 조사되었다.<sup>13~18)</sup> 개인이 어느 정도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이냐에 따라 그의 의복 스타일 선호도가 진취적이거나 보수적이거나 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내향성-외향성 성격특성은 의복의 시각적 평가와 관련지어 연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격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의 차이와 선호도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의복의 시각적 평가는 지각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복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내향성-외향성은 의복 이미지 평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의복지출비는 한 개인의 배경 특성을 나타내는 관련 변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의복비가 의복스타일의 시각적 평가에 영향을 주리라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복스타일의 시각적 이미지 평가의 차원을 조사하며, 의복스타일, 지각자의 성격 및 의복비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파악하고, 성격과 의복비에 따른 의복스타일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의복의 인상형성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며, 의복의 시각적 지각의 차이를 이해하여 사회생활에서 적절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를 둔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의복의 시각적 평가

우리는 사회생활의 대인지각 과정에서 타인을 평가할 때 의복에 대한 시각적 평가를 하게 되는데, Allport<sup>20)</sup>는 짧은 시간의 지각이 이루어질 때 처음 본 사람의 나이, 직업, 계층, 성격, 깔끔함, 성실성이 어느 정도 평가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시각적 평가에 영향을 주는 지각대상자의 특성에는 신체, 의복 유형, 의복 색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의복 유형이나 스타일에 대한 시각적 평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weat과 Zentner<sup>21)</sup>는 여성 의복 스타일에 관한 연구에서 드라마틱한 스타일의 착용자는 비인습적이고, 로맨틱한 스타일과 내추럴한 스타일의 착용자는 사회성이 높으며, 클래식한 스타일의 착용자는 격식을 차리는 사람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Butler 와 Rosset<sup>22)</sup>의 연구에서는 여교사의 의복 유형 중

진(jean)을 착용한 교사는 수트를 착용한 교사보다 더 재미있고 접근이 쉬우나 지적 능력이 낮게 평가되었고, 수트를 착용한 교사는 권위있게 평가되었다. Thurston, Lennon, Clayton<sup>23)</sup>의 연구에서는 착용자의 연령이나 신체 유형에 상관없이 수트를 착용한 여성의 드레스를 착용한 여성보다 더 전문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최신 유행의 디테일이 있는 의복은 전문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Bell<sup>24)</sup>은 남성복 스타일에 따른 성격특성 지각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대담한 스타일과 캐주얼 스타일은 매력성과 지적 특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보수적 스타일은 매력적이며 지적으로 지각되었으며, 캐주얼 유형보다 더 사회적으로 평가되었다. Behling<sup>25)</sup>은 정장 스타일, 고급 스타일, 최신 유행 스타일, 비규범적 스타일, 낡은 스타일로 구분된 고등학생 등 교복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정장 스타일 착용자가 다른 스타일보다 지능과 학업성취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강혜원, 이주현<sup>26)</sup>은 한복 및 양복 착용자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평가 요인에서는 양복 착용자가 한복 착용자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품위 요인에서는 한복 착용자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남미우, 강혜원<sup>27)</sup>의 연구에서는 의복 유형(정장, 캐주얼), 형태(유행형, 기본형), 색(유행색, 기본색)에 따른 남자 의복착용자의 인상을 평가하게 한 결과 의복 유형 및 형태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났으나 유행색 여부에 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숙<sup>28)</sup>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체격과 의복을 변화시켜 연구한 결과 협동 요인이 격식차림 여부에 따라 달리 평가되었으며, 전호경, 황선진<sup>29)</sup>은 임산부의 의복스타일에 따라 호의도와 업무수행 능력 평가가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방희선, 고애란<sup>30)</sup>은 현재 유행하고 있거나 많이 입혀지는 의복 스타일은 세련된 인상을 주고, 무난하고 평범한 의복 스타일은 성실한 인상을 준다고 하였다. 류숙희, 김보연<sup>31)</sup>의 연구에서는 클래식한 의복 스타일은 성숙하고 조심성있는 이미지를 지니며, 캐주얼한 스타일은 활동적이나 매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엘

례강스한 스타일은 성숙해 보이며, 드라마틱한 스타일은 매력성과 성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맨틱한 스타일은 매력적이고 어리게 보이며, 매니쉬한 스타일은 대담하고 활동적이지만 매력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 2. 의복스타일 선호도

의복스타일이란 서로 구별되는 의복의 특징적인 형태로서 실루엣, 선, 디테일 등에 의하여 구분되며, 의복이미지에 의해 의복스타일이 분류될 수 있다.

이명희, 김현주<sup>32)</sup>는 6가지 이미지를 나타내는 슈트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미혼여성이 기혼여성보다 남성적이며 활동적인 스타일을 더 선호하였고, 대졸 여성은 고졸 여성보다 화려한 이미지의 의복스타일을 더 선호하였다. 또한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사넬수트와 같은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김영인<sup>33)</sup>의 연구에서 19세 이하의 여성들은 활동적 감각의 단순한 스타일을, 경제수준이 낮은 미혼 여성은 여성적 감각의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류숙희, 김보연<sup>34)</sup>의 연구에서 20대는 여성스럽고 엘레강스한 스타일, 30대는 매니쉬한 스타일, 40·50대는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정삼호<sup>35)</sup>는 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였는데 작은 키와 마른 체형은 짧은 상의를 선호하는데 비해 큰 키와 뚱뚱한 체형은 긴 상의를 선호하였다. 임숙자<sup>36)</sup>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태도가 진보적인 여성은 직선 경향의 의복스타일을, 온건적인 여성은 여성적인 경향의 의복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삼호, 문선정<sup>37)</sup>의 연구에서 로맨틱 엘레강스 스타일을 선호하는 집단은 유행혁신성과 유행의사선도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승희, 임숙자<sup>38)</sup>의 연구에서 유행선도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정장스타일을 더 선호하였고, 유행추종자는 유행선도 집단에 비해 무난한 스타일을 더 선호하였다.

장혜원<sup>39)</sup>의 연구에서 주부들은 사교모임에 참석할 때 클래식한 이미지를 가진 의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류층이 상류층에 비해 매니쉬한 의복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숙

희, 류지은<sup>40)</sup>은 특정 상황에서의 여성복 스타일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맞선 상황에서는 남녀 모두 엘레강스-클래식한 의복을 선호하였으나 미팅 상황에서는 여성의 경우 매니쉬한 스타일을 더 선호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의복스타일 선호도가 연령, 학력, 계층, 심리적 특성, 유행선도력 등 다양한 개인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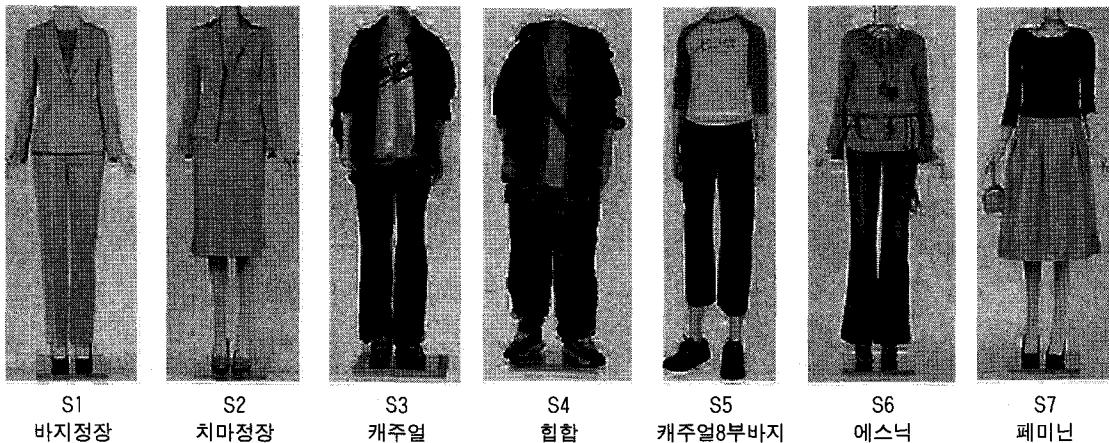
####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질문지에 의한 조사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의복스타일 자극물과 이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시각적 이미지 평가 문항, 의복스타일 선호도, 내향성-외향성 성격특성, 인구통계적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극물은 총 7가지로 바지정장, 치마정장, 캐주얼, 힙합, 캐주얼8부바지, 에스닉(민속풍의) 스타일, 페미닌 스타일을 포함하였다. 바지정장은 테일러드 재킷과 바지, 치마정장은 테일러드 재킷과 A라인 스커트, 캐주얼은 티셔츠 위에 남방셔츠를 입고 청바지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힙합은 티셔츠와 남방셔츠

위에 후드티셔츠를 겹쳐 입고 통이 넓은 힙합바지를 착용한 모습이며, 캐주얼8부바지는 7부 소매 티셔츠에 일자형 8부바지를 착용한 모습이다. 에스닉은 레이스로 장식된 브이넥크 블라우스에 술장식이 있는 벨트를 하고 벨보텀형의 청바지를 착용한 모습이며, 페미닌은 네크라인에 레이스 장식이 있으며 몸에 붙는 형의 셔츠와 광택 있는 소재로 된 개더스커트를 착용한 모습이다. 자극물의 사진은 인터넷 사이트<sup>41~43)</sup>에서 선정하였으며,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험에 적합하도록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시각적 평가 시 의복 색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자극물을 흑백으로 조정하였으며 배경은 흰색이었다. 자극물의 크기는 6×12cm였다. <그림 1>은 자극물의 모습이다.

이미지 평가에 사용된 의미미분척도는 선행연구<sup>44~46)</sup>에서 사용한 용어를 참조하여 12개의 형용사쌍을 수집하였으며,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의복스타일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 의복스타일을 좋아하는 정도를 1문항 사용하여 7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외향성-내향성 성격특성은 선행연구<sup>47)</sup>에서 8문항을 택하였으며, 5단계 Likert 척도법을 사용하였다. 외향성-내향성 문항은 Cronbach's α 신뢰도 검사 결과 1개 문항은 신뢰도가 낮아 제외시켰으며, 7문항의 α 신뢰도는 .69였다. 본 연구에서는 7개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중앙치 3.14 이상은 외향성 집



<그림 1> 자극물

단, 3.14 미만은 내향성 집단으로 피험자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향성 집단은 44.2%, 외향성 집단은 55.8%였다. 인구통계적 변인은 연령과 월평균 의복지출비를 조사하였다. 의복비는 분포도를 조사하여 의복비 상 집단과 의복비 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월평균 의복비 상 집단은 10만원 이상으로 38.3%, 하 집단은 10만원 미만으로 61.7%였다.

##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피험자는 서울 지역의 18~37세 여성 120명이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10월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요인분석, Cronbach's  $\alpha$  신뢰도 분석, 이원변량분석, 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논의

### 1. 의복이미지 평가의 요인분석

의복이미지를 평가하는 의미미분척도 형용사 12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요인 1은 고급스러운-고급스럽지 않은, 품위있는-품위없는, 지성적인-지성적이지 못한 등이 포함되어 품위 요인이라 칭하였고, 요인 2는 활동적인-비활동적인, 발랄한-점잖은, 개성적인-평범한 등이 포함되어 활동성·개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화려한-수수한, 유행을 따르는-유행을 따르지 않는 등이 포함되어 유행성이라고 하였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64 이상이고 요인 3까지의 누적변량은 72.37%이었다. 각 요인의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는 요인 1에서 요인 3까지 각각 .85, .83, .64였으며, 만족할 만한 수치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품위, 활동성·개성 요인의 도출은 정인희, 이은영<sup>48)</sup> 박소향, 김인숙<sup>49)</sup>, 이명희<sup>50)</sup>의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유행성 요인의 도출은 김일분, 유태순<sup>51)</sup>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1> 의복이미지 평가의 요인분석

(N=120)

요인 1 품위		요인부하량
고급스러운 - 고급스럽지 않은		.79
품위있는 - 품위없는		.79
지성적인 - 지성적이지 못한		.77
세련된 - 춘스러운		.76
매력적인 - 매력적이지 못한		.69
변량 = 28.34%	누적변량 = 28.34%	
고유치 = 3.40	$\alpha$ 신뢰도 = .85	
요인 2 활동성·개성		요인부하량
활동적인 - 비활동적인		.87
발랄한 - 점잖은		.80
개성적인 - 평범한		.78
사교적인 - 비사교적인		.66
변량 = 26.00%	누적변량 = 54.34%	
고유치 = 3.12	$\alpha$ 신뢰도 = .83	
요인 3 유행성		요인부하량
화려한 - 수수한		.78
유행을 따르는 - 유행을 따르지 않은		.76
여성적인 - 남성적인		.64
변량 = 18.03%	누적변량 = 72.37%	
고유치 = 2.16	$\alpha$ 신뢰도 = .64	

### 2. 의복스타일, 지각자의 성격 및 의복비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

의복스타일, 지각자의 성격 및 의복비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주효과를 보면 의복비에 따라 모든 요인의 평가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성격은 활동성 및 개성 요인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외향성이 높은 여성이 내향성이 높은 여성보다 같은 자극물에 대하여 더 활동적이며 개성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복스타일이 캐주얼스타일, 힙합, 캐주얼8부바지 등 활동성 점수가 높은 의복들이 제시되었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고 및 행동의 방향이 외부를 향하였으므로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활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캐주얼한 스타일의 의복을 더욱 활동적인 것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류숙희, 류지은<sup>52)</sup>의 연구에서 적극개방형이 소극보수형보다 같은 스타일을 더 개성적으로 평가했던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본다.

〈표 2〉 의복스타일과 지각자의 성격 및 의복비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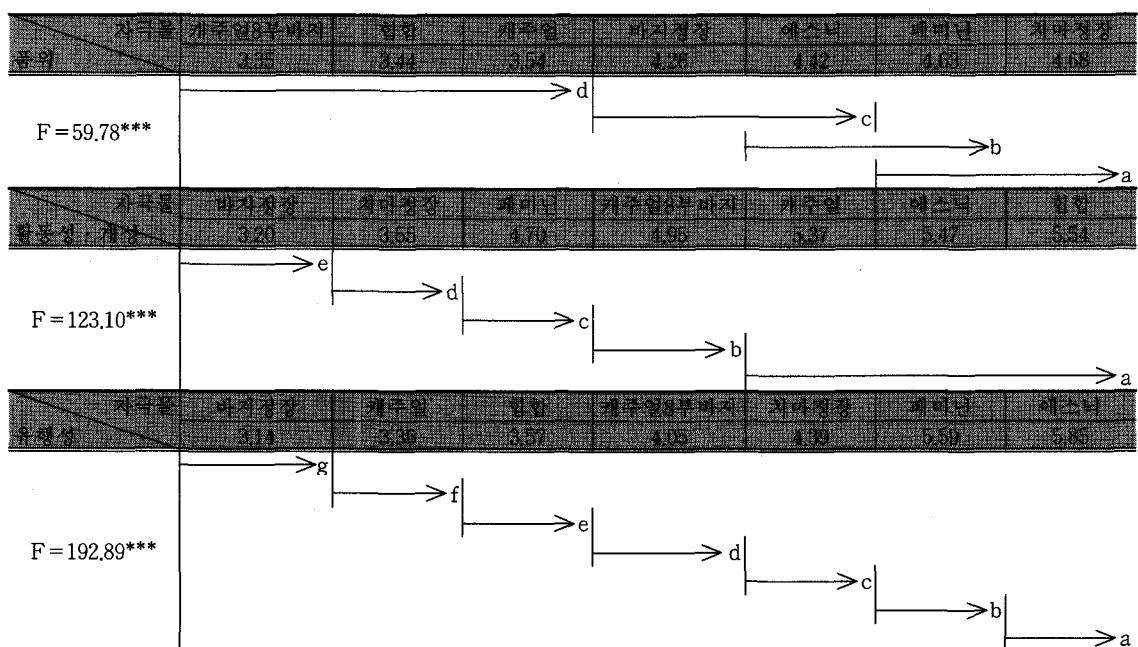
(N=120)

		의복스타일(A)	59.78***	123.10***	192.89***
3원 변량분석	주효과	성격(B)	2.41	5.71*	.15
		의복비(C)	3.20	.31	2.80
	2원상호 작용효과	A×B	.42	1.28	1.33
	A×C	1.19	.49	1.21	
	B×C	3.56	.40	7.86**	
3원상호 작용효과	A×B×C	.31	.59	.41	
변인	속성	M	M	M	
평균	의복 스타일	바지정장	4.26	3.20	3.14
		치마정장	4.68	3.55	4.39
		캐주얼	3.40	5.37	3.36
		힙합	3.39	5.54	3.57
		캐주얼8부바지	3.24	4.95	4.05
		에스닉	4.42	5.47	5.85
		페미닌	4.63	4.70	5.59
	성격	내향성	3.97	4.60	4.29
		외향성	4.03	4.75	4.27
의복비	의복비 하	4.04	4.69	4.31	
	의복비 상	3.94	4.67	4.23	

\*p&lt;.05 \*\*p&lt;.01 \*\*\*p&lt;.001

〈표 3〉 의복스타일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의 차이

(N=120)



\*\*\*p&lt; .001 a~g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의복스타일은 품위, 활동성·개성, 유행성 요인 모두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의복스타일에 따른 각 이미지 평가 요인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Duncan의 다변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품위 요인은 4개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치마정장이 a집단에 속하여 가장 품위있게 지각되었다. 캐주얼8부바지, 힙합, 캐주얼 스타일은 d집단에 속하여 가장 품위가 낮게 평가되었다.

활동성·개성 요인은 5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힙합, 에스닉, 캐주얼 스타일은 a집단에 속하여 비교적 활동적이며 개성있게 평가되었다. 반면 바지정장과 치마정장은 활동적이지 않고 개성없게 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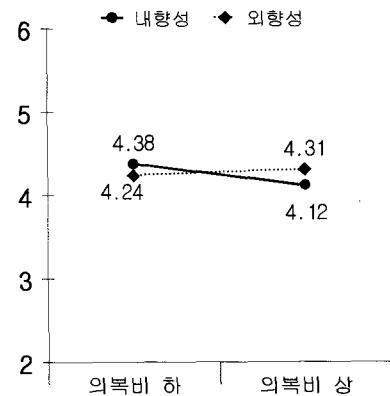
유행성 요인은 7개 집단으로 각각 분류되었으며, 에스닉 스타일이 a집단으로 가장 유행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페미닌 스타일이 두 번째로 유행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바지정장은 g집단에 속하여 가장 유행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바지정장은 유행성과 활동성·개성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치마정장은 품위있게 지각되었다. 힙합 스타일은 활동성·개성이 높게 지각되었으며, 캐주얼8부바지, 힙합, 캐주얼은 품위가 낮게 지각되었다. 에스닉 스타일은 유행성, 활동성 및 개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바지정장은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형태로 착용되어온 전통적인 남성 신사복과 유사한 스타일이므로 유행성이 낮았으며 또한 포말한 정장이라고 생각되어 활동성도 낮게 평가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치마정장이 가장 품위있게 지각된 것은 여성복으로서 바지보다 치마가 더욱 격식차리는 복장임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본다. 또한 힙합스타일이 활동성, 개성이 가장 높게 지각된 것은 힙합스타일이 규범에 얹매이기를 싫어하고 활동량이 많은 청소년층에서 선호하는 스타일이며 운동량이 많은 힙합댄스를 상징하므로 활동성, 개성이 높게 지각되었다고 해석된다.

각 요인의 상호작용효과 검증에서는 유행성 요인이 지각자의 성격과 의복비에 따른 유의한 상호작

용효과가 있었으며, 매력성과 활동성·개성 요인은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다(표 2). 지각자의 성격 및 의복비에 따른 유행성 평가의 상호작용형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지각자의 성격 및 의복비에 따른 유행성 평가의 상호작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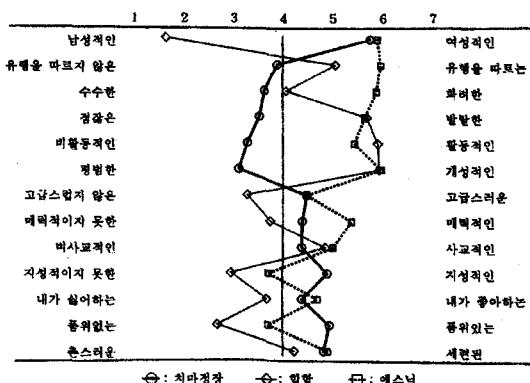
〈그림 2〉에서 내향적인 여성은 의복비가 낮은 사람의 의복비가 높은 사람보다 자극물의 유행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외향적인 여성은 의복비에 따른 유행성 평가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것은 외향적인 여성보다 내향적인 여성은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영향을 받아 같은 옷차림에 대해서 유행을 인지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적으로 품위, 활동성 및 개성, 유행성 요인의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난 치마정장, 힙합, 에스닉 스타일에 대한 이미지 문항 평가의 차이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치마정장은 여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품위있고 세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범하고 비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 이것은 선행연구<sup>53),54)</sup>에서 보수적인 스타일이 지적으로 평가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힙합 스타일은 남성적, 발랄한, 활동적, 개성적인 이미지였으나 지성적이지 못하고 품위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에스닉 스타일은 개성적이고 유행을 따르며, 여성적, 화려한 이미지였으나 지성적이지 못하고 품위 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 3. 지각자의 성격과 의복비에 따른 의복스타일 선호도의 차이

지각자의 성격과 의복비에 따른 의복스타일 선호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그림 3> 의복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문항 평가

<표 4> 지각자의 성격과 의복비에 따른 의복스타일 선호도의 차이

(N=120)

		주효과		상호작용		2원변량분석		평균	
2원변량분석	주효과	성격(A)	의복비(B)	13.72***	18.61***	14.67***	6.39*	71.62***	17.80***
		A×B	.00	31.00***	8.09**	15.40***	48.89***	.00	32.33***
	변인	속성	M	M	M	M	M	M	M
평균	성격	내향성	2.21	1.74	3.32	.81	1.42	.89	2.02
	의복비	외향성	2.54	2.22	3.46	.99	2.07	1.24	2.54
		의복비 하	2.23	1.82	3.45	1.03	1.55	1.08	2.15
		의복비 상	2.65	2.30	3.33	.72	2.15	1.09	2.57
	전체		2.39	2.01	3.40	.91	1.78	1.08	2.31

\*p<.05 \*\*p<.01 \*\*\*p<.001

<표 4>에서 주효과를 보면 에스넉 스타일을 제외한 모든 스타일의 선호도에서 의복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의복비가 높은 여성의 의복비가 낮은 여성보다 바지정장, 치마정장, 캐주얼8부바지, 페미닌 스타일을 더 선호하였으며, 캐주얼, 힙합 스타일은 의복비가 낮은 여성의 더 선호하였다. 성격에 따라 모든 스타일 선호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

어, 외향성이 높은 여성의 내향적인 여성보다 각 스타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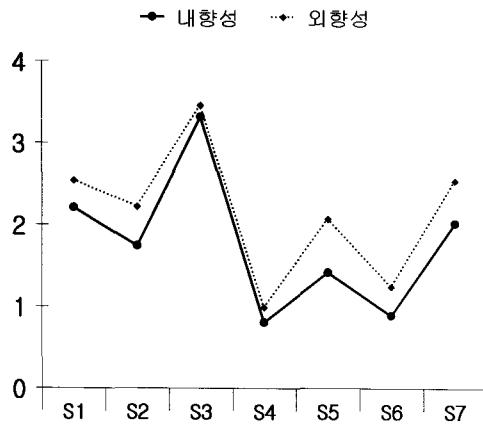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의복비가 높은 여성의 낮은 여성보다 바지정장, 치마정장 등 정장스타일을 선호한 것은 선행연구<sup>55)</sup>에서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호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의복비가 낮은 여성의 캐주얼, 힙합 스타일을 선호한 것은 선행연구<sup>56)</sup>에서 하류층이 상류층에 비해 매니쉬한 의복을 선호한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는 의복스타일 선호의 전체적인 분포를 나타낸 결과이다. <그림 4>에서 볼 때 내향성과 외향성 집단 모두 캐주얼스타일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외향성이 높은 여성의 내향성이 높은 여성보다 특히 캐주얼8부바지를 선호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것은 외향적인 사람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지니므로 다양한 스타일의 의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특히 활동적이며, 발랄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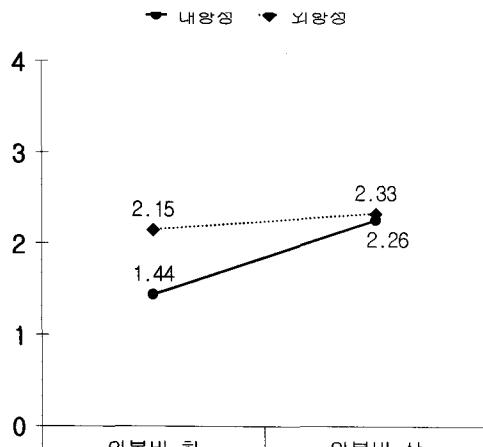
부바지를 더욱 선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내향적인 여성들이 외향적인 여성에 비해 캐주얼8부바지를 선호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선행연구<sup>57)</sup>에서 온건적인 여성의 여성적인 의복스타일을 더 선호한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었다.

지각자의 성격과 의복비에 따른 의복스타일 선호도의 상호작용효과는 치마정장과 캐주얼 스타일 선

호에서 유의적인 효과가 있었다. 치마정장 선호의 상호작용형태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서 의복비가 높은 경우는 성격에 따른 치마정장 선호의 차이가 없었으나, 의복비가 낮은 집단은 성격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즉, 의복비가 낮은 여성은 내향적인 여성이 외향적인 여성보다 치마정장을 선호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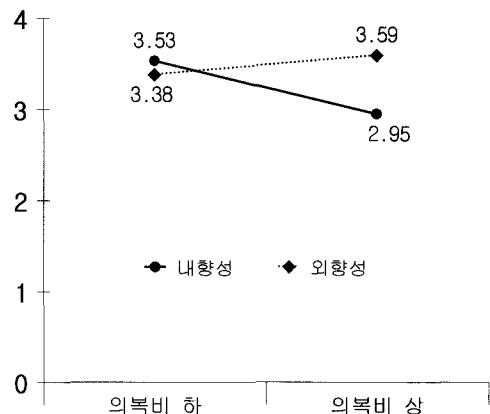


〈그림 4〉 의복스타일 선호의 분포도



〈그림 5〉 지각자의 성격 및 의복비에 따른  
치마정장 선호도

지각자의 성격 및 의복비에 따른 캐주얼 스타일  
선호도의 상호작용 형태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지각자의 성격 및 의복비에 따른  
캐주얼스타일 선호도

<그림 6>에서 내향적인 여성은 의복비가 낮은 여성의 의복비가 높은 여성보다 캐주얼 스타일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향적인 여성은 의복비가 높은 여성의 의복비가 낮은 여성보다 캐주얼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향적인 사람은 의복비가 높은 여성의 캐주얼스타일을 선호하고, 내향적인 사람은 의복비가 낮은 여성의 캐주얼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의복의 시각적 이미지 평가의 차원을 조사하고, 의복스타일과 지각자의 내향성-외향성 성격특성 및 의복비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파악하며, 성격특성과 의복비에 따른 의복스타일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피험자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18~37세 여성 120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차원은 품위, 활동성·개성, 유행성의 3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의복스타일에 따라 품위, 활동성·개성, 유행성의 지각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바지정장은 활동성 및 개성과 유행성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치마정장은 품위있게 지각되었다. 혼합 스타일은 활동

성 및 개성이 높게 지각되었으며, 캐주얼8부바지는 품위가 낮게 평가되었다. 에스닉 스타일은 유행성이 높게 지각되었으며, 폐미닌 스타일은 품위와 유행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내향성·외향성 성격에 따라 활동성·개성 요인의 평가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외향성이 높은 여성이 내향성이 높은 여성보다 같은 자극물에 대하여 더 활동적이며 개성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성격과 의복비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는 유행성 요인에서 유의적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내향성이 높은 사람은 의복비가 적은 여성이 의복비가 많은 여성보다 유행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의복비에 따른 유행성 평가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즉 내향적인 여성은 의복의 유행성을 인지하는 정도가 자신의 경제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성격에 따라 모든 스타일 선호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 외향성이 높은 여성이 내향성이 높은 여성보다 각 스타일을 더 선호하였으며, 특히 캐주얼8부바지를 선호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것은 외향적인 여성들이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지니므로 다양한 스타일의 의복을 모두 수용하며, 특히 활동적인 8부바지를 더욱 선호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섯째, 의복비가 높은 여성은 의복비가 낮은 여성보다 바지정장, 치마정장, 캐주얼8부바지를 더 선호하였으며, 캐주얼, 힙합 스타일은 의복비가 낮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편이었다.

여섯째, 성격과 의복비에 따른 의복스타일 선호도는 치마정장과 캐주얼 스타일에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의복비가 낮은 경우는 내향적인 여성의 외향적인 여성보다 치마정장을 선호하지 않았다. 캐주얼 스타일은 내향적이면서 의복비가 낮은 여성이 의복비가 높은 여성보다 선호도가 높았으며, 외향적인 사람은 의복비가 높은 여성이 의복비가 낮은 여성보다 캐주얼 스타일을 더 선호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치마정장 스타일은 품위있게 보이고, 캐주얼8부바지는 품위가 낮았으며 바지정장은 유행성이 낮고 힙합스타일은 활동성, 개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외향적인 여성들은 의복의 활동성을

적극적으로 지각하며, 다양한 스타일을 폭넓게 선호하였다. 또한 의복비가 높은 여성들은 정장스타일의 선호도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지각자의 성격 및 의복지출비에 따라 의복의 이미지 평가와 선호도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지각자 변인이 의복의 시각적 평가에 영향을 주는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된 의복스타일의 수가 제한되었다는 것과 한 사람의 피험자가 여러 개의 자극물을 동시에 평가함으로 발생하는 비교효과가 발생하여 평가의 타당도가 약화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스타일을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폭넓게 조사하면서 피험자간 설계에 의한 준실험연구로 조사하여 측정의 타당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Sweat, S. J., & Zentner, M. A. (1985). Attributions toward female appearance styles, in Solomon, M. R. 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Mass.: D. C. Health and Co., pp. 321-334.
- 2) Paek, S. L. (1986). Effect of garment style on the perception personal trai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5(1), pp. 10-16.
- 3) Thurston, J. L., Lennon, S. J., & Clayton, R. V. (1990). Influence of age, body type, fashion, and garment type on women's professional imag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9(2), pp. 139-150.
- 4) 류숙희, 류지은 (2001a). 여성 의복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지각자 특성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9(4), pp. 639-651.
- 5) Delong, M. R., Salusso-Deonier, C., & Larntz, K. (1983). Use of perceptions of female dress as an indicator of role defini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4), pp. 327-336.
- 6) 김광경, 강혜원 (1992). 남성적·여성적 의복이 직장 여성의 직업특성과 직업적합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I): Suit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2), pp. 1-20.
- 7) 이향미, 김재숙 (1998). 남자 고등학교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의 영향: 대전 지역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3), pp. 312-320.
- 8) 이미연, 이명희 (2000). 웨딩ドレス의 디자인 요소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제1보): 실루엣과

- 네크라인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5), pp. 724-735.
- 9) 이현화, 박찬부 (1990). 지각자의 성격변인에 따른 의복단서의 인상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3), pp. 341-352.
  - 10) 류숙희, 김보연 (2001). 자기 이미지가 의복 스타일 이미지 평가와 선택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9(5), pp. 734-746.
  - 11) 류숙희, 류지은. 앞의 책, pp. 639-651.
  - 12) 강혜원 (1995). *의상사회심리학*(개정판). 서울: 교문사, p. 206.
  - 13) Kahng, H. (1971). *Clothing interests and clothing aspirations associated with selected social-psychological factor for a group of college women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p. 65-79.
  - 14) 강혜원 (1974).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논총*, 11, pp. 349-375.
  - 15) 박길순 (1981). 직물문양의 기호와 내향성-외향성 성격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홍선옥 (1983). 성인 남자의 의복행동과 사회적 내향성-외향성 성격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이미혜, 이인자 (1990). 성격차원이 선호 의복 상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8(3), pp. 13-24.
  - 18) 유경숙, 이명희 (1998). 외향성-내향성, 성별 및 연령과 의복이미지 선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2), pp. 105-114.
  - 19) 이인자, 이경희, 신효정 (2001). *의상심리*. 서울: 교문사, p. 148.
  - 20) Allport, G. (1937).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enry Holt & Co. p. 500, cited by Horn, M. J. &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p. 159.
  - 21) Sweat, S. J., & Zentner, M. A. *op. cit.*, pp. 321-336.
  - 22) Butler, S., & Rossel, K. (1989). Research note: The influence of dress on student's perceptions of teacher characteristic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7(3), 57-59.
  - 23) Thurston, J. L., Lennon, S. J., & Clayton, R. V. *op. cit.*, pp. 139-150.
  - 24) Bell, E. L. (1991). Adult's perception of male garment styl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0(1), pp. 8-12.
  - 25) Behling, D. (1995). Influence of dress on perception of Intelligence and scholastic achievement in urban schools with minority population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3(1), pp. 11-16.
  - 26) 강혜원, 이주현(1990).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I): 한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1), pp. 31-43.
  - 27) 남미우, 강혜원(1994).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의 연령이 남자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8(3), pp. 311-326.
  - 28) 이미숙(1995). 의복의 격식차림, 음암수준 및 아동체형이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9) 전호경, 황선진 (1998). 직장상황 임산부의 의복스타일과 직업유형이 호의도와 업무수행능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6), pp. 706-715.
  - 30) 방희선, 고애란 (1999). 청소년의 의복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11), pp. 1-17.
  - 31) 류숙희, 김보연. 앞의 책, pp. 734-746.
  - 32) 이명희, 김현주 (1997). 의복스타일 이미지 선호와 자기이미지와의 관계 연구. *복식*, 33, pp. 41-53.
  - 33) 김영인 (1989). 선호 디자인 감각에 따른 의복구매자 유형과 관련된 생활양식 특성에 관한 연구(2): 의복 구매자 유형과 스타일 선호 및 구매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3(4), pp. 412-426.
  - 34) 류숙희, 김보연 (2002). 연령에 따른 의복스타일 이미지 평가와 선호도.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과학논집, 28, pp. 63-74.
  - 35) 정삼호 (1989). 성인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 디자인 선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64.
  - 36) 임숙자 (1992). 여대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18.
  - 37) 정삼호, 문선정 (2001). 연예인 유행스타일 선호도에 따른 유행선도력 및 의복태도 연구. *중앙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논집, 14, pp. 163-186.
  - 38) 이승희, 임숙자 (1998). 유행선도력에 따른 소비자의 추구혜택 및 의복스타일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7), pp. 942-951.
  - 39) 장혜원 (1996).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9, p. 52.
  - 40) 류숙희, 류지은 (2001b). 청인상 형성 상황에서의 이상적 여성상과 의복스타일 선호도. *한국의류학회지*, 25(4), pp. 817-827.
  - 41) CC Club. 자료검색일 2002. 10. 3. 자료출처 <http://www.cc-club.co.kr>
  - 42) Fubu. 자료검색일 2002. 10. 3. 자료출처 <http://www.fubu.co.kr>
  - 43) Levi's Korea. 자료검색일 2002. 10. 3. 자료출처 <http://www.levi.co.kr>
  - 44) 차미승 (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74-76.
  - 45) 주소현, 이경희 (1999). 의복, 배경의 조합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3(1), pp. 78-89.
  - 46) 김윤경, 이경희 (2000). 의복무늬의 시각적 감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6), pp. 861-872.
  - 47) 강혜원. 앞의 책, pp. 349-375.
  - 48) 정인희, 이은영 (1992). 의복 이미지의 구성요인과 평가차원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4), pp. 379-392.
  - 49) 박소향, 김인숙 (1994). 남자대학생의 여성복 이미지

- 평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2), pp. 170-179.
- 50) 이명희 (2003). 지각자의 유행관여가 의복색 지각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7), pp. 851-861.
- 51) 김일분, 유태순 (1998). 의복이미지 유형과 디자인 요소와의 관계. *복식*, 45, pp. 103-120.
- 52) 류숙희, 류지은 (2001a). 앞의 책, pp. 639-651.
- 53) Paek, S. L. *op. cit.*, pp. 10-16.
- 54) Bell, E. L. *op. cit.*, pp. 8-12.
- 55) 이명희, 김현주. 앞의 책, pp. 41-53.
- 56) 장혜원. 앞의 책, p. 29.
- 57) 임숙자. 앞의 책, p. 118.